

믿음의 말, 불신의 말

민수기 14:26~38

【인도자를 위한 예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이자 철학자, 정치경제학자인 프랜시스 요시히로 후쿠야마(Francis Yoshihiro Fukuyama)는 저서 「트러스트」에서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적 특성은 바로 ‘신뢰’라고 주장합니다. 한 사회에 신뢰가 형성되면 좋은 사회적 자본이 생겨나면서 종교 등의 문화적 기제를 통해 신뢰 관계가 전수됩니다. 그로 인해 사회가 계약보다는 자발적 사회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는 민간 대기업의 형성으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고신뢰 사회와 저신뢰 사회의 특징을 철저한 예증을 통해 보여 줍니다. 특별히 주목할 대목은 그가 진단한 기독교의 영향력입니다. 그는 미국이 개인주의적으로 보이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신뢰 관계가 형성된 공동체주의적 성향이 더 크다고 언급합니다.

기독교가 일으키는 신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신뢰감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 사람 사이에도 신뢰가 생겨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배경 이해하기】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받던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매 순간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큰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용서받았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법도 한데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습니다(27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백성을 이끈 지도자들과 이를 따른 백성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20세 이상 백성 중 여호와를 원망한 사람은 모두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 동안 반역의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33절). 가나안 땅을 악평한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유아들은 생존해 그 땅에 들어갑니다(30~31절).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정탐꾼 열 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원망의 말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나요?(27~30절)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자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죽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14:2)이라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13:30)라고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눅 6:45). 예수님도 우리의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또한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마 12:36~37).

적용과 나눔 I

원망의 말 등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 나쁜 결과를 맞게 된 일, 자업자득의 대가를 치른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로부터의 완전한 승리와 해방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불신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의심과 불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관찰과 묵상 II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한 정탐꾼 열 명은 어떻게 되었나요?(36~38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인해 죽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방향으로 백성을 이끄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지도자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백성을 이끈다면,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열 명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불신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책임감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35절; 롬 6:23). 백성에게 불신과 원망의 씨를 뿌린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죽었습니다(37절). 불신의 소리는 자신도 망하게 하고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적용과 나눔 II

공동체에서 나는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 뜻을 바르게 전달하나요? 그러기 위해 무엇을 훈련하고 간구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부모나 교사 등의 자리에 있는 이들의 말에는 더 큰 힘이 실립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제대로 분별해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자기 말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으로 인해 나오는 온갖 불신적인 언행을 경계해야 합니다. 실수 없이 말을 하기 위해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